

Big Stone's Market Briefing

Market Analyst 강대석

02)368-6165 ds.kang@eugenefn.com

증시 지표(10/15일)

지수	증가	전일비(pt)	등락률	YTD
한국 KOSPI	3,015	26.4	0.9%	4.9%
KOSDAQ	991	7.1	0.7%	2.3%
미국 Dow	35,295	382.2	1.1%	15.3%
S&P500	4,471	33.1	0.7%	19.0%
Nasdaq	14,897	73.9	0.5%	15.6%
유럽 Eurostoxx50	4,183	33.9	0.8%	17.7%
영국FTSE100	7,234	26.3	0.4%	12.0%
독일DAX30	15,587	124.6	0.8%	13.6%
프랑스CAC40	6,728	42.3	0.6%	21.2%
아시아 중국상해종합	3,572	14.1	0.4%	2.9%
홍콩恒生	25,331	368.4	1.5%	-7.0%
일본닛케이225	29,069	517.7	1.8%	5.9%
대만가권	16,781	393.9	2.4%	13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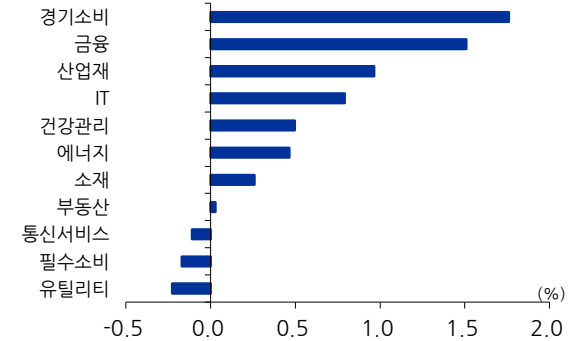
채권 (% ,bp)	증가	1D	1W	YTD
한국 국고채 10년물	2,360	1.5	-0.2	63.8
한국 국고채 3년물	1,792	-2.0	10.0	82.2
미국채 10년물	1,570	6.0	-4.2	65.7
미국채 2년물	0,395	3.5	7.7	27.4
장단기 금리차(10년-2년)	117.5bp	115.1	129.4	79.2

환율 및 원자재	증가	1D	1W	YTD
USD/KRW	1,182.50	0.0%	-1.2%	8.9%
USD/EUR	1.16	0.0%	0.3%	-5.0%
USD/JPY	114.22	0.5%	1.8%	10.6%
미 달러 지수	93.94	0.0%	-0.1%	4.4%
WTI 국제유가(\$)	82.28	1.2%	3.7%	69.6%
GOLD(\$)	1,767.62	-1.6%	0.6%	-6.9%
SILVER(\$)	23.31	-0.9%	2.8%	-11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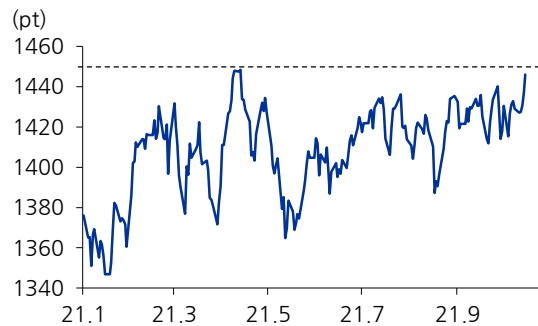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

- 전주말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모두 상승. S&P500 지수는 9/16일 이후 약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
- 이 날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+0.7%를 기록하며 예상(-0.2%mom)을 상회.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+0.9%로 +0.2%p 상향 조정됨
- 한편 11/8일부터 미국정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발표
- 업종별로는 경기소비, 금융, 산업재 등 리오프닝과 경기민감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함

S&P500 업종별 등락률



미국 경기민감-경기방어 업종 주가 스프레드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- 최근 경기방어 업종과 경기민감 업종의 상승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음
- 9월 이후 감소하고 있는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영향으로 경기재개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 연준의 통화정책, 공급병목현상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
-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지난 5월 저점 이후 경기민감 업종이 방어적 업종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스프레드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
- 경기민감 업종의 상대적 강세는 지난 4월 연중 고점에 거의 근접.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



빅스톤이 꼽은 오늘의 키워드는 조정 후반기입니다.

10/15일 미국증시가 경기민감 업종과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, 다우지수는 지난 8월 사상최고치까지 1%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. 중국 경기둔화나 공급난 이슈와 같은 여러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지만, 증시는 두 달 가까이 악재의 소화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

당장 남아있는 악재들을 뚫고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만한 강한 상승재료는 보이지 않지만, 조정의 싸이클이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지난주 국내증시는..

KOSPI, 2주 만에 3,000pt 회복에 성공

주간 개인 KOSPI 순매수 상위

종목명	주가 (원, 수정주가)	등락률 (%)	순매수대금 (억원)
1 삼성전자	70,100	-2.0	11,925
2 SK텔레콤	300,000	-1.5	967
3 삼성전기	162,500	-2.4	946
4 대한항공	31,150	-0.5	709
5 POSCO	328,000	2.5	538
6 KODEX 200선물인버스2X	2,245	-3.4	435
7 셀트리온	220,000	-1.8	381
8 SK아이이테크놀로지	193,500	-4.2	379
9 하나금융지주	44,200	-0.9	271
10 한국전력	22,950	0.7	266

주간 외인 KOSPI 순매수 상위

종목명	주가 (원, 수정주가)	등락률 (%)	순매수대금 (억원)
1 LG화학	836,000	9.4	2,937
2 SK하이닉스	98,400	4.7	1,026
3 한화솔루션	44,650	6.3	770
4 기아	83,800	2.3	614
5 SK이노베이션	258,500	4.2	606
6 SK케미칼	320,500	6.7	548
7 하이브	306,500	9.1	372
8 디피씨	17,400	19.6	315
9 현대차	208,500	1.7	282
10 한전기술	59,100	30.0	277

주간 KOSPI 업종 동향(% , 억원)

업종명	등락률	개인 순매수	외인 순매수
기계	8.9	-903	379
섬유의복	8.9	-224	254
의료정밀	5.2	-118	49
철강금속	5.0	725	-860
은행	4.6	-205	-117
화학	4.5	-6,120	3,792
건설업	3.6	-180	-107
증권	3.4	-165	11
의약품	2.9	-58	-224
서비스업	2.8	-3,520	678
비금속광물	2.6	96	-387
운수창고업	2.4	1,166	-883
운수장비	2.3	-3,278	660
코스피	2.0	307	-13,930
금융업	2.0	-1,169	11
제조업	1.9	3,002	-13,210
음식료품	1.7	-98	-80
유통업	1.6	-111	234
종이목재	1.3	-20	32
전기가스업	0.8	79	-201
보험업	-0.2	-176	-65
전기전자	-0.2	12,999	-16,825
통신업	-0.7	937	-238

10/15일 KOSPI는 0.88% 상승한 3,015.06pt(+26.42pt)에 마감하며 3일 만에 100pt 가까이 급등. KOSDAQ은 0.72% (+7.11pt) 상승한 990.54pt에 마감

KOSPI는 외인 및 기관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강세를 보였음. KOSPI 22개 업종 중 20개 업종이 상승. 삼성전자(+1.4%)와 SK하이닉스(+4.8%)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짐. 한편 비트코인이 7천만원을 상향돌파하자 관련 테마도 강세 경향

지난주 KOSPI는 주간으로 +2.0%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에 성공. 2,900pt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확인했고, 공급난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겨나며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. 이번주에는 중국 경제와 미국 기업실적 관련 이슈에 따른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, KOSPI는 안정적 3,000pt대 안착에 도전할 전망

증시 자금동향

	10/14일(조원)	전일비(억원)	전주비(억원)
고객예탁금	65.5	4,112	-45,344
신용잔고(KOSPI)	12.6	1,261	-5,313
신용잔고(KOSDAQ)	10.4	307	-5,190
미수금잔고	0.3	-82	-502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